



2nd Week, September

주간 도내언론 키워드 및 해외 정책동향

Vol. 7

주간 도내언론 키워드 및 해외 정책동향

□ 주간 도내언론 주요 키워드

○ 제주지역 ①정치·행정, ②경제·관광, ③지역·사회 등 3개 분야 언론의 주요 키워드 분석 결과

분야	주요 키워드
정치·행정	오영훈, 추석, 기초자치단체, 연휴, 대응, 수립
경제·관광	관광객, 추석, 홍보, 여행, 투자, 자연
지역·사회	추석, 연휴, 오영훈, 차량, 예방

※ 분석 기간 : 9월 9일~9월 13일 ;

대상 언론사 : 한라일보, 제주일보, 제주매일, 제민일보, 뉴제주일보, 제주의소리, 헤드라인제주

○ 정치·행정 분야의 키워드가 도출된 주요 보도 내용(※ 9 페이지 참고)

정치·행정	오영훈	- 제주형 행정체제 개편 추진 - 주민투표 및 국회의 지원 요청
	추석	- 추석 연휴 응급의료 대응 - 추석 종합 대책
	기초자치 단체	-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설치 법안 - 행정체제 개편 공론화
	연휴	- 연휴 기간 비상 상황 대응 - 교통 및 관광 대책
	대응	- 고수온 피해 대응 - 직장 내 괴롭힘 대응
	수립	- 제4차 관광진흥계획 수립 - 제주 도시철도망 구축 계획

○ 경제·관광 분야의 키워드가 도출된 주요 보도 내용(※ 10~11 페이지 참고)

경제·관광	관광객	- 호주 관광객 유치 및 제주 홍보 - 추석 연휴 기간 관광객 감소 예상
	추석	- 제주공항의 추석 특별 교통 대책 - 추석 연휴 전통시장 활기
	홍보	- 호주 시장에서의 제주 관광 홍보 - 중국 골프 관광객 유치 마케팅
	여행	- 대만 관광객 유치 증가 - 캐나다 카름스테이 마을 체험
	투자	- 제2공항 건설에 대한 경제계의 기대 - 제주 해양수산 기업의 해외 판로 개척
	자연	- 플라스틱 제로 제주 원정대 - 제주 자연경관 홍보 강화

○ 지역·사회 분야의 키워드가 도출된 주요 보도 내용(※ 12 페이지 참고)

지역·사회	추석	- 추석 연휴 교통사고 예방 - 연휴 의료 공백 최소화 대책
	연휴	- 연휴 기간 교통사고 및 벌쏘임 사고 증가 - 연휴 날씨 및 기상 예보
	오염훈	- 제2공항 건설에 대한 반대 투쟁 - 대법원 벌금형 확정
	차량	- 제2공항 반대 차량 시위 - 추석 연휴 교통사고 다발
	예방	- 추석 연휴 사고 예방 대책 - 침수 안전사고 주의보 발령

□ 주간 해외(아시아) 정책동향

○ 중국

- ✓ 중국은 동남아 국가들과 농산물 및 공산품 무역을 확대하고, 디지털 전환과 청정 에너지 협력을 강화하며 RCEP 협정을 통해 경제 파트너십을 높일 예정임. 또한, 신흥 산업 분야 협력과 경제 협력구역 구축을 통해 양국 기업과 국민에게 더 많은 혜택을 제공할 예정
- ✓ 허난성(河南省)은 녹색 저탄소 전환을 촉진하기 위해 녹색 대출 활성화와 녹색 채권 발행을 확대하며, 다양한 금융 모델을 도입할 계획임. 에너지, 산업, 교통, 건축 등 다양한 분야에서 녹색 금융을 통해 저탄소 전환을 적극 지원하여 2030년까지 완벽한 녹색 금융 체계를 구축 목표로 설정
- ✓ 톈진시는 개인 사업자의 기업 전환을 지원하기 위한 18가지 조치를 발표함. 이 조치에는 등록 서비스 최적화, 융자 지원, 세금 감면 등이 포함되며, 전환 후 고기술 기업은 법인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음. 창업 보증 대출과 보조금 지원도 함께 제공
- ✓ 중국은 최초의 해상 부유형 태양광 플랫폼 '황해 1호'를 산둥성 칭다오에 설치함. 이 플랫폼은 여섯 면체 구조로 설계되어 10미터 높이의 파도도 견딜 수 있으며, 434개의 태양광 패널이 장착됨. 1년간의 실증 데이터를 통해 부유형 태양광 기술의 해상 적용 가능성을 평가할 예정
- ✓ 중국은 아프리카 33개국을 포함한 최빈국에 대해 100% 품목의 무관세 혜택을 제공하는 정책을 발표했으며, 2024년 12월부터 시행될 예정임. 이 조치는 최빈국의 경제 발전을 지원하고, 중·아프리카 무역 협력을 촉진할 것으로 기대
- ✓ 산둥성(山东省)은 농촌 자원과 자산을 활성화하여 새로운 형태의 농촌 집단 경제를 발전시키기 위한 조치를 발표함. 특산 산업 발전 계획을 통해 농촌 주민의 소득을 증대시키고, 향촌 진흥 기로 포럼 2024를 통해 다양한 소득 증대 방안을 논의 예정
- ✓ 중국은 서비스 무역의 전면적 개방과 고품질 발전을 위한 의견을 발표하고,

디지털화, 스마트화, 친환경화를 통해 경제 글로벌화를 추진할 예정임. 서비스 무역의 제도적 개방 강화와 자원 요소의 국경 간 흐름 촉진, 주요 분야의 혁신적 발전 등을 통해 국제 시장을 확장할 예정

- ✓ 중국의 여러 도시가 신홍 산업을 통해 경제 활성화와 글로벌 투자 유치를 강화하고 있음. 항저우는 전자상거래 중심지로 1위를 차지했으며, 다양한 산업 구조가 경쟁력을 지지함. 우한, 지난, 창사, 청두 등 도시가 상위권에 진입하며 기술 투자를 증가 중
- ✓ 중국 국제 경제 교류 센터와 텐센트 연구소는 디지털 기술이 신생 생산력의 핵심 동력으로 부상하며, AI, 클라우드 컴퓨팅 등 첨단 기술이 산업의 디지털화 및 지능화 추진 중

○ 말레이시아

- ✓ 말레이시아는 농업 부문 강화를 위해 개방형 정책을 채택하고, 민관협력을 통해 농업, 축산업, 수산업의 혁신을 추진할 예정임. 아세안 국가들과 협력을 강화해 식량 안보를 보장하며, 농업 경쟁력을 높이고, 2024년에는 농업 부문에 61억 7,000만 링깃을 투입

○ 필리핀

- ✓ 필리핀은 무역 및 산업 표준을 고도화하기 위해 다양한 국제 이니셔티브를 통해 협력을 강화할 예정임. 국경 통제와 수출입 규정 준수를 강화하며, 필리핀의 글로벌 무역과 산업 표준을 개선해 경제 성장을 촉진할 계획임. STM 프레임워크에 따른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

○ 태국

- ✓ 태국은 경제 활성화를 위해 '디지털 지갑' 정책을 조기 시행하여 1,500억 바트를 투입하고, 5,000만 태국인에게 각 1만 바트를 제공할 예정임. 스마트폰 소유 여부와 관계없이 참여 가능하며, 경제 성장을 향상과 경기 부양을 목표로 함. 과거 타당성 논란에도 불구하고 정책을 추진 중

○ 싱가포르

- ✓ 싱가포르는 말레이시아 사라왁 주와 신재생에너지 협력을 강화하며, 사라왁의 천연자원과 전략적 위치를 활용할 계획임. 양자 무역 및 관광 연계성을 높이고 신재생에너지 수입을 확대하기 위한 추가 협력 방안 모색

○ 일본

- ✓ 일본은 수소 연료 전지 차량 보급을 위해 고속도로 대형 차량 운행이 많은 지역을 '중점 지역'으로 지정하여 지원할 예정임. 2025년까지 최대 10곳을 선정하고, 수소 트럭과 버스 도입 목표를 설정하며, 205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 실질 제로를 목표로 설정
- ✓ 나가노현은 2026년 4월부터 숙박세를 도입해 관광 진흥을 도모할 계획임. 숙박세 수익은 교통 및 관광지 디지털화에 중점 배분하며, 시정촌과 과세 조율을 검토 중임. 리피터 관광객 증가와 체험형 관광 활성화에 중점을 두며 장기 체류를 유도할 예정
- ✓ 나고야시는 사전 예약 가능한 데마드 교통 시스템 구축을 위해 실험을 추진하며, AI 기반 경로 계산을 통한 합승 택시 실험도 진행할 예정임. 주민 주도로 교통 계획을 수립하고, 실증 운영을 통해 효율적인 공공 교통 체계를 구축 예정
- ✓ 오키나와 국두손은 지역 신화와 자연을 중심으로 한 주민 주도 관광 프로그램을 도입함. 참가비 일부는 지역 협력금으로 사용되며, 주민 가이드가 안내하는 투어는 지속 가능한 관광 모델로 평가받고 있음. 프로그램 확장 및 외국인 관광객 유치 예정
- ✓ NTT 동부와 NTT 커뮤니케이션즈는 사이타마현 서부 4개 도시와 협력하여 탈탄소화 실험을 진행함. '그린 프로그램 for Employee' 앱을 통해 직원들의 탈탄소 행동을 시각화하고 CO2 절감 효과를 측정할 예정임. 중소기업의 탈탄소 경영을 지원하는 모델 사업으로 선정

- ✓ 가고시마현은 해외 크루즈선 증가로 외국인 관광객이 급증하며, 관광 소비액이 코로나19 이전 수준에 도달함. 대형 크루즈선의 투어가 지역 경제에 기여하지만, 대부분 당일치기로 운영되어 숙박을 통한 경제적 효과 확대가 필요한 상황

- ✓ 히로시마현은 지역 문제 해결을 위해 AI를 활용한 실증 실험을 지원하는 '히로시마 AI 샌드박스'를 시작함. 기업과 AI 개발자를 연결하고, 개발 및 실증 비용의 절반을 지원함. AI 인재 양성 프로그램도 운영하여 지역 혁신 생태계를 조성할 예정

- ✓ 일본 정부는 후쿠시마현에 차세대 페로브스카이트 태양광 패널을 설치하여 재생 에너지 보급을 지원함. 곡면형 태양광 패널의 성능을 평가하고, 향후 후쿠시마 내 공공시설로 설치를 확대할 계획임. 실용화를 통해 다른 지역에서도 적용할 방침

Contents

- ☑ 언론분석: Word Cloud
- ☑ 해외(아시아) 정책동향



○ 정치·행정 분야의 키워드를 산출하는 주요 원인 :

정치·행정	오영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주형 행정체제 개편 추진 · 제주특별자치도의 행정체제 개편 추진. 오영훈 도정의 핵심 사업으로, 도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기초자치단체 도입을 위한 주민투표 추진 중임 - 주민투표 및 국회의 지원 요청 · 오영훈 도정은 국회를 방문하여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설치를 위한 지원을 요청함.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와의 면담을 통해 주민투표 실시를 촉구함
	추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추석 연휴 응급의료 대응 · 제주특별자치도는 추석 연휴 기간 동안 응급의료 대응체계를 강화. 권역응급의료센터 경증환자의 진료비 인상 안내 및 연휴 동안의 비상 진료 체계를 구축함 - 추석 종합 대책 · 제주도는 추석 연휴를 대비해 생활 물가 안정, 교통 안전 대책, 생활 민원 대응 등 10개의 종합 대책을 마련하여 종합상황실을 운영함
	기초자치단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설치 법안 · 제주시와 서귀포시에 각각 기초자치단체 설치를 위한 법안이 발의됨. 기초자치단체 도입으로 시장 직선제 부활 및 도민의 직접적인 자치 실현을 목표로 함 - 행정체제 개편 공론화 · 도민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공론화 작업이 진행됨. 기초자치단체 도입에 대한 찬반 여론 조사와 도민참여단의 숙의 토론 등을 통해 최종 권고안이 도출됨
	연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휴 기간 비상 상황 대응 · 연휴 기간 동안 민원 대응을 위한 종합상황실 운영. 민원 발생 시 24시간 대응 체제를 구축하여 도민과 방문객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함 - 교통 및 관광 대책 · 연휴 기간 동안 교통 혼잡과 관광 불편을 줄이기 위한 특별 대책을 마련. 주요 관광지과 교통 편의 제공을 위한 추가 대응책을 마련함
	대응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고수온 피해 대응 · 제주특별자치도는 최근 고수온으로 인한 양식장 피해에 대응하기 위해 액화산소 지원과 사전 대비책을 강화함. 피해지역에 대한 신속한 대응을 강조함 - 직장 내 괴롭힘 대응 · 제주시체육회장이 직장 내 괴롭힘 문제로 사퇴. 도의회는 이번 사건이 직장 내 갑질 행태에 대한 경고로 작용하기를 기대하며, 추가적인 대응책 마련을 촉구함
	수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4차 관광진흥계획 수립 · 제주특별자치도는 2024년부터 2028년까지의 제4차 관광진흥계획을 수립 중. 주요 사업의 착수 지연 문제로 계획이 늦어지고 있는 상황임 - 제주 도시철도망 구축 계획 · 제주특별자치도는 도시철도망 구축을 위한 계획 수립을 진행 중. 제주시와 서귀포시를 연결하는 도시철도망 타당성 분석과 수소트램 도입 검토를 포함함

- 208건 경제·관광 뉴스의 워드 클라우드를 살펴보면, 관광객, 추석, 홍보, 여행, 투자, 자연 등 단어의 출현 빈도가 높은 것으로 확인됨



[그림 2] 경제·관광 분야 뉴스의 Word-Cloud

○ 경제·관광 분야의 키워드를 산출하는 주요 원인 :

경제·관광	관광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호주 관광객 유치 및 제주 홍보 · 제주특별자치도는 호주 시장에서의 관광객 유치를 위해 K-관광 B2B 로드쇼에 참가. 해녀 문화,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 등 제주의 특색을 홍보하며 호주 현지 여행사와 협력함 - 추석 연휴 기간 관광객 감소 예상 · 추석 연휴 동안 제주를 찾는 관광객이 전년 대비 5.6% 감소할 것으로 예상됨. 국내선 이용객은 감소하였으나 국제선은 증가 추세를 보임
	추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주공항의 추석 특별 교통 대책 · 추석 연휴 기간 제주공항은 여객의 안전과 편의를 위해 특별 교통 대책반을 운영. 주차장 무료 개방과 교통 혼잡 예방을 위한 추가 대책 마련함 - 추석 연휴 전통시장 활기 · 추석을 앞두고 제주 전통시장이 성수품 구매를 위해 붐빔. 물가 상승으로 인해 소비자들이 가격에 민감하게 반응하며 판매가 이루어짐
	홍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호주 시장에서의 제주 관광 홍보 · 호주 시드니와 브리즈번에서 열린 K-관광 로드쇼에 제주관광공사가 참가하여, 제주의 자연경관과 문화를 집중 홍보함. 호주인들을 대상으로 장기 체류 상품 개발 논의 - 중국 골프 관광객 유치 마케팅

○ 지역·사회 분야의 키워드를 산출하는 주요 원인 :

지역·사회	추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추석 연휴 교통사고 예방 · 최근 5년 동안 추석 연휴에 발생한 교통사고 중 27.8%가 연휴 전날에 발생함. 도로교통공단은 귀성길 안전 운전을 당부하며 전 좌석 안전띠 착용과 음주운전 금지를 강조함 - 연휴 의료 공백 최소화 대책 · 제주도는 추석 연휴 동안 의료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24시간 비상 진료 체계를 가동함. 주요 병원들과 협력해 중증응급환자와 경증환자를 분산 수용할 계획임
	연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휴 기간 교통사고 및 벌쏘임 사고 증가 · 최근 5년 동안 추석 연휴에 평균 800여 건의 구급출동이 발생하며, 교통사고와 벌쏘임 사고가 주를 이룸. 제주 소방안전본부는 각종 사고에 대한 예방수칙 준수를 강조함 - 연휴 날씨 및 기상 예보 · 연휴 기간 동안 제주 지역은 고기압과 기압골의 영향으로 비가 내릴 가능성이 있으며, 추석 당일에는 구름 사이로 보름달이 보일 것으로 예보됨
	오영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2공항 건설에 대한 반대 투쟁 · 제주 제2공항 기본계획 고시와 관련해 농민들은 제2공항이 농지를 파괴하고 생존을 위협한다고 주장하며 차량 시위를 통해 오영훈 도지사에게 반대 의사를 전달함 - 대법원 벌금형 확정 · 오영훈 제주도지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대법원에서 벌금 90만원을 선고받아 지사직을 유지함. 오 지사는 사전선거운동 혐의로 기소되었으나 벌금형 확정으로 직위는 유지됨
	차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2공항 반대 차량 시위 · 제2공항 건설에 반대하는 농민들이 차량 시위를 통해 도민의 의견을 표명하며, 제2공항이 농업에 미치는 영향을 우려함 - 추석 연휴 교통사고 다발 · 추석 연휴 기간 동안 차량 사고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어 도로교통공단은 안전운전을 당부함. 특히 연휴 전날 사고가 집중됨
	예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추석 연휴 사고 예방 대책 · 제주소방안전본부는 추석 연휴 기간 동안 벌쏘임, 예초기 사고 등 다양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비상대응 체계를 가동함. 시민들에게 예방수칙 준수를 당부함 - 침수 안전사고 주의보 발령 · 최근 5년간 집중호우로 인한 안전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함에 따라 제주소방은 '침수 안전사고 주의보'를 발령하며 도민들의 주의를 당부함

2 해외(아시아) 정책동향

지역	제목 및 주요 내용
중국	<p>○ 중국, 동남아시아 국가와의 농산물 및 공산품 무역 확대 지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국 상무부는 9월 11일, 중국-동남아시아 경제협력 및 제21회 중국-동남아시아 박람회, 중국-동남아시아 비즈니스 및 투자 정상회의 관련 상황에 대해 발표했다. 리페이 상무부 부부장은 중국과 동남아시아 국가들이 중요한 협력 파트너로서, 거대 시장을 공유하고 경제 보완성을 발휘하며 자원 요소를 합리적으로 배치하는 데 광범위한 공동 이익이 있음을 강조했다 - 중국은 동남아시아 국가와의 전면적 전략적 파트너십 강화를 위해, 고품질의 '지역 포괄적 경제 동반자 협정'(RCEP)을 적극적으로 시행하고 경제 파트너십을 높은 수준으로 끌어올릴 예정이다. 또한, 동남아시아 국가와의 무역을 확대하고, 농산물 및 공산품의 수입을 늘려 무역 원활화를 촉진할 것임 - 중국은 동남아시아 국가와 디지털 전환, 청정 에너지, 인공지능 등 신흥 분야에서의 협력을 확대하고, 경제 협력구역 구축을 통해 산업 연계를 촉진할 예정이다. 또한, '한-메콩 경제 협력 5개년 발전 계획'을 실현하며, 지역 내 농산물, 제조업, 전자상거래 등 분야의 협력을 추진해 양국 기업과 국민에게 더 많은 혜택을 제공할 것임 <p>* 출처: 中国新闻网</p> <hr/> <p>○ 허난성, 녹색 금융 지원 강화</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허난성은 녹색 금융 혁신 발전을 위해 '허난성 금융 지원 녹색 저탄소 발전 시행 계획'을 발표했다. 이 계획은 허난성의 녹색 저탄소 전환 전략을 촉진하고, 2030년까지 완벽한 녹색 금융 서비스 체계를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함 - 계획에 따르면, 허난성은 녹색 대출을 활성화하고 재대출, 재

지역

제목 및 주요 내용

할인 등 통화 정책 도구를 활용하여 탄소 감축 효과가 큰 기업에 저금리 용자를 지원할 예정임. 또한, 은행, 증권, 보험, 펀드 등 금융기관을 대상으로 다양한 녹색 채권 발행을 장려하며, 녹색 투자 확대를 목표로 함

- 녹색 보험 분야에서는 환경 보호 및 재해 대응을 위한 다양한 보험 상품을 개발하고, '녹색 보험 + 은행 대출 + 생태 제품'이라는 새로운 녹색 금융 모델을 구축할 계획임. 이를 통해 허난성은 에너지, 산업, 교통, 건축 등 다양한 분야에서의 녹색 저탄소 전환을 적극적으로 지원할 것임

* 출처: 中国新闻网

○ 텐진시, 개인 사업자의 기업 전환 지원을 위한 18가지 조치 발표

- 텐진시는 개인 사업자가 기업(회사, 개인 독자 기업, 합작 기업 포함)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다양한 조치를 담은 '텐진시 개인 사업자 전환 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방안에는 등록 및 승인 서비스 최적화, 생산 운영 지속 지원, 용자 지원 강화, 창업 및 고용 보조금 제공, 세금 감면 및 유연한 규제 등의 18가지 구체적인 조치가 포함되어 있음
- 개인 사업자가 운영자를 변경하지 않고도 법적 절차에 따라 기업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독려하며, 등록 정보 및 영업 명성과 지식재산권을 유지하는 방안을 제공함. 전환 후 일정 조건을 충족하는 소규모 기업은 최대 400만 위안의 창업 보증 대출과 이자 보조를 받을 수 있으며, 최초 창업자는 1회 3,000위안의 창업 보조금을 신청할 수 있음
- 세금 감면 측면에서, 전환 후 국가가 지원하는 고기술 기업으로 인정되면 법인세를 15% 세율로 적용하며, 일정 매출 이하의 기업은 교육비 부가세 등을 면제받을 수 있음

* 출처: 中国新闻网

지역

제목 및 주요 내용

○ 중국, 최초의 해상 부유형 태양광 플랫폼 '황해 1호' 설치

- 중국 최초의 해상 부유형 태양광 플랫폼 '황해 1호'가 9월 12일 산둥성 칭다오에서 출항하여 황해 해역에 설치됨.
- 이 플랫폼은 중국 화녕 그룹이 개발했으며, 설치 후 1년간의 실증 데이터를 수집하여 부유형 태양광 기술의 해상 적용을 평가할 예정임
- '황해 1호'는 여섯 면체 구조와 트러스형 설계를 채택해, 50년 만에 한 번 발생하는 최대 10미터의 파도를 견딜 수 있도록 설계되었음. 플랫폼에는 434개의 태양광 패널이 장착되어 있으며, 이는 중국 내에서 가장 강력한 파도 저항 능력을 가진 부유형 해상 태양광 플랫폼임

* 출처: 中国新闻网

○ 중국, 최빈국에 100% 품목의 제품 무관세 혜택 제공

- 중국은 최빈국에 대해 100% 품목에 대해 무관세 혜택을 제공할 것을 발표함으로써, 이를 시행하는 최초의 주요 경제체가 되었음
- 이 정책은 아프리카 33개국을 포함한 모든 중국과 수교한 최빈국을 대상으로 하며, 중국의 대규모 시장이 아프리카의 기회로 작용할 것임
- 이번 조치는 2024년 12월 1일부터 시행되며, 최빈국의 경제 발전을 지원하고 중·아프리카 간의 무역 협력을 촉진할 것으로 기대됨

* 출처: 中国新闻网

○ 산둥성, 농촌 자원 자산 활성화로 신형 농촌 집단 경제 발전

- 산둥성은 농촌 자원과 자산을 활성화하여 새로운 형태의 농촌 집단 경제를 발전시키기 위한 조치를 발표했음
- 산둥성은 특산 산업 발전 계획을 통해 농촌의 자산을 활용할

지역

제목 및 주요 내용

수 있는 경로를 마련하고, 이를 통해 농촌 주민의 소득을 증대시키고자 함

- 농촌 주민의 연간 가처분 소득은 23,776위안으로 전년 대비 7.5% 증가했으며, 이는 도시 주민의 소득 증가율보다 2.4%포인트 높았음. 또한, 농촌 주민의 소득 증대와 농촌 경제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계획이 포함된 '향촌 진흥 기로 포럼 2024'도 준비 중임

* 출처: 中国新闻网

○ 서비스 무역 개방 촉진을 위한 전면적 시스템 구축

- 중국 국무원은 '서비스 무역의 고품질 발전을 위한 의견'을 발표하여, 서비스 무역의 전면적 개방과 고품질 발전을 촉진하기 위한 시스템적 접근을 강조함. 이 정책은 글로벌 서비스 무역의 디지털화, 스마트화, 친환경화가 경제 글로벌화의 중요한 동력으로 부상하고 있다는 점을 반영함
- 2013년부터 2023년까지 글로벌 서비스 수출은 연평균 4.9% 증가하여, 이는 상품 수출 증가율의 약 두 배에 달함. 2023년 중국의 서비스 무역 총액은 6.6조 위안으로, 전년 대비 10% 증가하며 사상 최대치를 기록함
- 정책은 서비스 무역의 제도적 개방 강화, 자원 요소의 국경 간 흐름 촉진, 주요 분야의 혁신적 발전 추진, 국제 시장 확장, 지원 체계 완비 등 다섯 가지 주요 영역에 20개의 주요 과제와 70여 개의 구체적인 정책 조치를 제안함

* 출처: 经济参考报

○ 중국 도시, 신흥 산업 육성으로 투자 유치 강화

- 미르켄 연구소의 '2023-2024 중국 최고 성과 도시 지수' 보고서는 중국의 여러 도시가 신흥 산업 육성을 통해 지역 경제를 활성화

지역**제목 및 주요 내용**

화하고 글로벌 투자 유치를 촉진하고 있다고 분석함. 특히, 항저우는 전자상거래 중심지로 부상하며 1위를 차지했으며, 다양한 산업 구조를 갖춘 점이 경쟁력의 원천으로 작용함

- 항저우는 전통적인 관광 중심지에서 경제 다각화를 통해 중국의 라이브 커머스 중심지로 변모하고 있으며, 엔터테인먼트, 금융 서비스, 제조업 등 다양한 산업이 경쟁력을 지지함
- 그 외에도 우한, 지난, 창사, 청두 등의 도시가 상위권에 진입하였고, 이는 각 도시가 기술 투자를 늘리고 인공지능, 자율주행차, 전기차와 같은 신흥 산업에 집중한 결과로 평가됨

* 출처: 经济参考网

○ **디지털 기술이 신생 생산력 발전을 촉진**

- 중국 국제 경제 교류 센터와 텐센트 연구소가 발표한 '디지털 기술이 신생 생산력 발전에 기여하는 보고서'는 디지털 기술이 신생 생산력의 핵심 동력임을 강조하며, 기업의 디지털 전환과 고품질 발전을 지원하기 위한 10가지 산업 사례를 소개함
- 텐센트를 비롯한 중국의 디지털 기술 기업들은 인공지능, 클라우드 컴퓨팅, 빅데이터 등의 첨단 기술을 통해 여러 산업에 혁신을 도입하며, 전방위적으로 산업의 디지털화 및 지능화를 추진하고 있음
- 보고서는 기업과 공공 부문이 협력하여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혁신을 촉진하고, 생산 과정과 제품 생애주기, 산업 및 공급망의 디지털화를 통해 전반적인 산업 혁신을 촉진할 것을 제안함

* 출처: 经济参考网

말레이시아

○ **말레이시아, 농업 부문 강화 위한 개방형 정책 추진**

- 말레이시아 농업·식량안보부 장관 모하마드 사부는 말레이시아가 농업 부문 강화를 위해 개방적인 정책을 채택하고 있다

지역

제목 및 주요 내용

고 발표함. 이를 통해 국내외 투자자와의 전략적 파트너십을 환영하며, 민관협력(PPP)을 적극 추진할 계획임

- '국가 농식품 안보 혁신 프로그램(PINTAR)' 이니셔티브를 통해 농업, 축산업, 수산업 등 전반에서의 혁신을 위한 5가지 핵심 전략을 제시하고, 이를 통해 말레이시아 농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함
- 말레이시아는 아세안 국가들과의 협력을 강화하고, 양자 및 다자 협상을 통해 지역 식량 안보를 보장할 계획임. 2024년에는 농업 및 식량 안보 부문에 약 61억 7,000만 링깃을 배정하여 농부와 어부들의 사회경제적 지위를 개선하고자 함

* 출처: Bernama, Research Gate

○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와 신재생에너지 전략 모색

- 말레이시아 부총리 겸 에너지·물 전환부 장관인 다투크 세리 파딜라 유소프는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서 열린 '2024 인도네시아 지속가능포럼'에서 루훗 빈사르 판자이탄 인도네시아 해양투자 업무 조정장관과 양자회담을 개최함. 이 자리에서 양국은 에너지 공급망 강화와 신재생에너지 전환에 대한 협력을 논의함
- 유소프 부총리는 양국이 에너지 공급망 및 신재생에너지 역량 강화를 위한 협력을 모색 중이며, 역내 국가 간 협력을 확대해 지속가능한 개발을 촉진할 계획이라고 설명함
- 또한, 바흐릴 라하달리아 인도네시아 에너지·광물자원부 장관과의 회담을 통해 그린에너지 분야 협력 증진 방안을 논의함

* 출처: The Star, Bernama

○ 말레이시아, 국방 분야 AI 기술 도입 검토

- 말레이시아 국방부는 국방력 강화를 위해 국방 부문 내 인공지능(AI) 기술 도입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 중임. 국방부 장관

지역	제목 및 주요 내용
필리핀	<p>모하메드 칼레드 노르딘은 AI가 국방을 포함한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되고 있다고 설명하며, 말레이시아 군 내 AI 도입을 위한 국제적 표준 준수의 필요성을 강조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칼레드 장관은 서울에서 열린 '인공지능의 책임 있는 군사적 이용에 관한 고위급회의(REAIM 2024)'에서 여타 국가의 AI 도입 사례를 참고하며, 말레이시아 군 내 AI 활용 확대를 위한 세부 전략을 마련할 계획임. 현재 일부 AI 기술이 도입된 상황이지만, 향후 더 광범위한 활용을 목표로 하고 있음 <p>* 출처: Bernama, NST Online</p> <hr/> <p>○ 필리핀, 무역 및 산업 표준 개선 약속</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필리핀 대통령 페르디난드 마르코스 주니어는 필리핀 전략무역 관리(STM) 정상회의에서 필리핀의 무역 및 산업 표준을 고도화할 계획을 발표했으며, 이번 정상회의에는 약 300명의 현지 및 국제기구 대표단이 참석함 - 필리핀 정부는 STM 프레임워크에 따라 국경 통제와 수출입 관련 규정 준수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으며, 핵심 산업 개발을 목표로 하는 전략적 투자 계획을 추진 중임 - 마르코스 대통령은 아세안, APEC, RCEP, IPEF 등 다양한 국제 이니셔티브를 통해 필리핀의 국제 협력을 강화하고, 글로벌 무역과 산업 표준을 개선하는 데 주력할 것이라고 강조함. <p>* 출처: Inquirer, Presidential Communications Office</p>
태국	<p>○ 태국, 디지털 지갑 정책 조기 시행 예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태국 재무부차관 줄라폰 아몬비바트는 '디지털 지갑' 정책을 조기에 시행하여 약 1,500억 바트를 2024년 9월 말까지 제공할 계획을 발표했으며, 이를 통해 약 5,000만 태국인에게 각 1만 바트를 제공해 경제 활동을 촉진할 계획임

지역	제목 및 주요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 정책은 스마트폰 소유 여부와 관계없이 국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조정될 예정이며, 과거 재정적 타당성에 대한 비판이 있었지만 태국 정부는 이를 통해 경제 회복을 목표로 하고 있음 - 태국 정부는 디지털 지갑 정책을 통해 경제 성장률을 끌어올리고, 기존의 경제 정책들을 이어가며 경기 부양을 지속할 계획임 <p>* 출처: Channel News Asia(CNA), Livarava</p>
	<p>○ 태국, 1조 5,000억 바트 규모 인프라 프로젝트 발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태국 총리 패통탄 친나왓은 약 1조 5,000억 바트(약 59조 4,800억 원) 규모의 민간 투자 유치를 목표로 하는 대규모 인프라 프로젝트를 발표함. 이 프로젝트는 태국의 경제 활성화와 핵심 인프라 개선을 목적으로 함 - 방콕과 인근 지역의 홍수 피해 대응을 위한 '진주 목걸이(Pearl Necklace)' 프로젝트를 통해 100km 규모의 해안 연장선과 9개의 인공섬이 건설될 예정이며, 태국만과 안다만 연안을 연결하는 물류 수송 개선 프로젝트도 포함됨. 이와 함께 대규모 엔터테인먼트 단지를 구축하여 관광지 내 대규모 투자를 유치할 계획임 <p>* 출처: Thaiger, The Government Public Relations Department</p>
싱가포르	<p>○ 싱가포르, 말레이시아와 신재생에너지 협력 강화 목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싱가포르 인력부 장관 탄 시 령은 말레이시아 사라왁 주와 신재생에너지 분야 협력을 강화하겠다는 의지를 밝히며, 사라왁의 풍부한 천연자원과 전략적 위치를 활용할 계획임 - 싱가포르는 사라왁과의 양자 무역 및 관광 연계성을 높이는 한편, 신재생에너지 수입과 관련한 추가 협력 방안을 모색 중임 - 탄 장관은 말레이시아 방문 동안 사라왁의 지도자들과 생산적인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했으며, 향후 양국 간 추가 회담을 통해 지속적인 협력을 이어갈 것을 기대한다고 전함 <p>* 출처: Bernama, The Star</p>

지역

제목 및 주요 내용

일본

○ 경제산업성, 수소 트럭 보급 위해 '중점 지역' 선정 계획

- 일본 경제산업성은 수소 연료 전지(Fuel Cell) 차량의 보급을 목표로 하는 지역을 '중점 지역'으로 지정하여 집중 지원할 계획임. 지원 대상 지역은 고속도로에서 대형 차량의 운행이 전국 평균보다 많은 지역으로, 트럭과 버스의 구매 및 수소 충전소 설비를 중점적으로 지원할 예정임
- 2024년 중으로 전국의 도도부현을 대상으로 공모를 시작해 2025년 3월까지 10곳 미만의 지역을 선정할 예정임. 선정된 지역에서는 자동차 제조사와 운송업체, 수소 충전소 사업자들이 참여하는 협의회를 구성해, 2030년까지의 수소 트럭 및 버스 도입 목표를 설정함
- 일본 정부는 205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 실질 제로를 목표로 하고 있으며, 운송 분야의 탈탄소화가 필수적이라고 판단하고 있음. 대형 수소 트럭의 본격적인 도입은 2025년 이후로 예상되며, 정부는 차량 구매 보조와 함께 수요 확대에 의한 대량 생산이 진행된다면 2030년경에 차량 가격이 절반 수준으로 낮아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음

* 출처: 日本經濟新聞

○ 나가노현, 2026년 4월 숙박세 도입 예정

- 나가노현은 2023년 관광지 이용객이 8,014만 명으로 코로나19 이전 수준을 회복하지 못했으나, 관광 소비액은 3,087억 엔으로 2019년을 초과함. 이에 따라 나가노현은 2026년 4월부터 호텔과 여관 숙박자에게 '관광 진흥세(가칭)'를 도입할 계획임
- 아베 수이치 지사는 나가노의 관광 발전을 위해 방문객에게도 일정 부담을 요청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하며, 세계 수준의 산악 관광지를 조성하기 위해 신속한 제도 구축이 중요하다고 강조함. 이와 함께 시정촌과의 과세 조율 및 재원 이전 방안도 검토 중임

지역

제목 및 주요 내용

- 앞으로의 관광 정책에서는 리피터 관광객 증가와 체험형 관광 활성화에 중점을 둘 계획이며, 유럽과 미국 관광객의 장기 체류를 유도하기 위한 환경 조성 과 교통 및 디지털화도 추진할 예정임

* 출처: 日本經濟新聞

○ 나고야시, 대도시 데마드 교통 실험 추진

- 나고야시는 사전 예약에 따른 운행이 가능한 데마드 교통 시스템 구축을 위해 실험을 추진 중이며, 이 과정에서 주민 주도의 운행 계획 수립을 지원하고 2025년도에 실용화를 목표로 하고 있음. 이는 인구 감소로 인한 시내 버스 노선 축소를 대비하기 위한 선제적 조치임
- 시는 나고야대와 명철 등과 협력하여, AI 기반의 경로 계산을 통한 합승 택시 실험을 진행할 계획임. 주민 주도로 데마드 교통 계획을 세우고, 시가 전문가와 협력해 운행 경로 등을 설정하는 협의회를 설립하여 세부 사항을 조율할 예정임
- 이번 실험은 교통 접근이 어려운 지역을 대상으로 하며, 이용 현황과 수익성 등을 분석해 계획을 수정하며 실증 운영을 강화할 계획임. 이는 효율적인 공공 교통 체계와 지역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 출처: 日本經濟新聞

○ 오키나와 국두손, 주민 주도 관광 프로그램 도입

- 오키나와 국두손의 관광협회는 지역 신화와 자연을 중심으로 하는 주민 주도의 새로운 관광 프로그램을 도입함. 프로그램 참가자는 지역의 역사와 신화를 체험하며, 참가비 일부는 지역 협력금으로 사용되어 신사 유지 등에 활용될 예정임
- 국두손은 세계자연유산인 '안바루의 숲'을 포함하고 있으며, 주민 가이드가 직접 안내하는 투어는 지나치게 많은 관광객을

지역

제목 및 주요 내용

유도하지 않으면서 지역 경제에 기여할 수 있는 '지속 가능한 관광' 모델로 평가됨

- 국두손 관광협회는 앞으로 주요 여행사와 협력해 이 관광 프로그램을 확장할 계획이며, 외국인 관광객 유치를 위해 다국어 안내사와 협력하여 프로그램을 운영할 예정임

* 출처: 日本經濟新聞

○ NTT 동부와 탈탄소 실험, 4개 도시와 협력

- NTT 동부와 NTT 커뮤니케이션즈는 사이타마현 서부의 4개 도시(도코로자와, 히다카, 사야마, 한노)와 협력하여 탈탄소화 실험을 진행함
- 이들 도시의 기업 직원들에게 환경 인식 향상과 탈탄소 행동을 장려하는 '그린 프로그램 for Employee' 앱을 제공하여 탈탄소화에 기여하는 행동을 기록하고 시각화함
- 이 실험은 10월 초부터 3주간 진행되며, CO2 절감 효과를 측정 후, 성과를 보고하는 자리를 가질 예정임. 이번 실험은 2021년 제로 카본 시티 공동 선언에 참여한 5개 도시 중 하나로, 2050년까지 CO2 순 배출 제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중소기업의 탈탄소 경영을 지원하는 모델 사업으로 선정됨

* 출처: 日本經濟新聞

○ 복구 중인 가고시마 관광, 크루즈선으로 외국인 방문 증가

- 가고시마현은 코로나19로 국제선 운항이 지연되었으나, 최근 해외 크루즈선의 증가로 외국인 관광객이 급증함. 이로 인해 2023년 관광 소비액이 코로나19 이전과 유사한 수준으로 회복되어, 가고시마 관광의 복구에 기여하고 있음
- 대형 크루즈선은 관광객을 위해 여러 투어를 제공하며, 이러한 투어는 지역 경제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음. 예를 들어, 대형

지역

제목 및 주요 내용

크루즈선이 한 번 정박할 때마다 약 7,200만 엔의 경제적 효과가 발생하는 것으로 추산됨. 다만, 크루즈선의 대부분 투어가 당일치기라 숙박을 통한 경제적 효과 확대가 필요함

* 출처: 日本經濟新聞

○ AI로 지역 문제 해결, 히로시마현의 기업 지원

- 히로시마현은 지역 문제 해결을 위해 인공지능(AI)을 활용한 실증 실험을 지원하는 '히로시마 AI 샌드박스'를 2024년 내에 시작함
- 이 프로그램은 AI를 통한 문제 해결을 원하는 현 내 기업과 AI 개발자를 연결하고, 개발 및 실증에 드는 비용의 절반을 최대 1억 엔까지 지원할 계획임
- 인재 양성을 위해 현 내 고등학생에게 학습 기회를 제공하는 '히로시마 AI부'도 운영되며, AI 연구의 권위자인 도쿄대학교 마쓰오 유타카 교수가 최고 고문으로 참여함. 히로시마현은 AI와 데이터를 활용한 혁신 생태계 조성에 주력할 예정임

* 출처: 日本經濟新聞

○ 후쿠시마에 차세대 태양광 설치, 정부의 복구 지원

- 일본 정부는 2024년도 내에 후쿠시마현에 차세대 페로브스카이트 태양광 패널을 3곳에 설치할 예정임.
- 이는 일본 내 처음으로 곡면형 태양광 패널을 지면에 설치하여 성능을 확인하고, 2025년도에는 후쿠시마 내 공공시설로 설치를 확대할 계획임
- 이번 설치의 후쿠시마 복구를 지원하기 위한 재생 에너지 보급 추진의 일환이며, 향후 다른 지역의 사업자들이 민간 주도로 실용화에 참여하도록 유도할 방침임.

* 출처: 日本經濟新聞